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거리에서 근대의상 패션쇼 연다

패션브랜드 슬링스톤과 업무협약 체결

내년 1월 9일 목포미식문화갤러리에서 개최
패션 영상물도 제작...근대유산 국내·외 홍보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근대의상 패션쇼를 연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목포시청에서 패션브랜드 슬링스톤(대표 박종철)과 '목포 근대역사문화 홍보'를 위한 근대의상 패션쇼 및 패션영상물 제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국내 최고 패션업체와 젊은 세대 감각을 공략하는 트렌디한 홍보 마케팅을 펼쳐 목포의 근대역사문화자원을 세련된 방식으로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슬링스톤은 패션쇼 의상·출연 모델·연출·촬영 등을 담당하고, 패션 영상물을 제작해 목포시에 제공하며 미디어 매체에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수행한다.

시는 슬링스톤의 패션쇼 및 근대역사문화거리 배경으로 한 영상물 촬영시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목포에서 근대의상 패션쇼를 개최하는 배경에는 목포의 자원이 밑바탕이 됐다. 목포는 근대역사문화자원의 보고로 흑백TV를 보는 듯한 느낌의 복고와 현대를 동시에 즐기는 융복합형 관광의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다. 슬링스톤 대표인 박종철 디자이너는 이와 같은 매력을 가진 목포를 근대의상 패션쇼의 최적지로 판단했다. 박 대표는 도교동 패션쇼, 광주패션위크, 뉴욕컬렉션, 한류페스티벌 등에서 패션쇼를

진행했으며, K팝아이돌 의상을 제작하는 등 세계적인 한국 남성복 디자이너다. 패션쇼는 내년 1월 9일 오후 5시 30분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에서 모델 26명이 출연하는 가운데 열린다. 패션쇼에서는 1930년대 근대 빈티지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제작한 작품을 선보인다. 또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지 않은 작품과 근대 오리지널 의상 등 2점을 인트로에서 선보인다. 패션 영상물 촬영은 내년 1월 9~10일까지 2일간 목포근대역사관1관~송자갤러리, 근대역사관2관 앞 도로변에서 모델 30여 명이 출연한 가운데 진행된다. 패션영상물은 목포시와 슬링스톤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양측 모두 SNS 등 각종 매체에 적극 홍보해 목포의 근대문화유산을 국내·외에 감각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박종철 시장은 "패션쇼를 통해 목포의 근대역사문화자원을 젊은 감각으로 홍보할 수 있



목포시-패션브랜드 슬링스톤 협약. (왼쪽 박종철 목포시장, 오른쪽 박종철 대표) 박종철 목포시장은 "목포만의 매력을 최대한 발산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열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해가겠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취재본부

함평군, 2022년 장애인 화합 송년행사 '성료'

함평군 지체장애인협회(회장 박종관)는 지난 20일 '2022년 장애인 화합 송년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상의 함평군수를 비롯한 장애인, 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소통·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날 행사에서 다사다난했던 일

인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행사는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위한 김장 담그기를 시작으로, 인사말씀, 유공자 표창, 장기 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몸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 장애인 70명에게 사랑의 김장김치 300포기를



직접 담가 전달하며 훈훈한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함평=김광춘기자

강종만 영광군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의 간담회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50억 지원 건의

강종만 영광군수는 20일 행정안전부에서 이상민 장관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주최한 호남권 무소속 지지체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군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법성한 해상보행교

설치공사(25억원) ▲영광스포츠클럽 건립(20억원) ▲영광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공사(5억원) 규모이다. 강종만 군수는 무소속으로서 민선8기 취임 이후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 여야 의원들을 수차례 면담하고 협의하며 지역현안 사업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영광=서희권기자

신안군, '통합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신안군은 20일 서울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신안군 공무원, 신안군의회 의원이 참석

한 가운데 매일경제신문 애그테크혁신센터, KDX 한국데이터거래소, MAM TECH(주)와 함께 '신안군 통합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한, '메타버스 타고가는 신안군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 세미나를 통해 메타버스로 인한 삶의 변화와 미래 모습을 통해 신안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1004개의 섬과 1도 1뮤지움, 1섬 1정원, 친환경 농수산물 등 신안군이 가진 자원의 가치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가상현실(Extended Reality)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신안=이덕주기자

무안군, 전체 마을에 마을안심 CCTV 설치

내년부터 4년 동안 249개 마을 예정

무안군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죄예방환경 조성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마을안심 CCTV를 전체 마을에 확대 설치한다. 군에 따르면 전(全) 마을, 마을안심 CCTV 설치 100%를 목표로 총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249개 마을에 연차적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 75개 마을 설치를 시작으로 민선 8기 임기 내 전체 마을에 CCTV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설치된 마을안심 CCTV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24시간 상시관제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빈집털이, 농산물 절도, 노약자를 상대로 한 각종 범죄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이번 마을안심 CCTV 설치사업을 통해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재난 등을 사전예방하고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무안군 CCTV통합관제센터'에는 관제요원 20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통해 생활방범, 어린이보호구역, 놀이터, 도시공원 등에 설치된 1,142대의 CCTV를 실시간 관제하면서 군민이 안전한 무안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실시간 관제로 528건의 관제실적과 626건의 영상제공을 통해 무안군 관내 범죄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범인 검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